

수행으로 “더위야 물릿저라~”

■ 금산사·금선암·실상사·심곡사 어린이 청소년 캠프 다채로운 행사로 불교 만나



김제 금산사 어린이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는 7월 31일~8월 2일, 8월 4일~6일 어린이 청소년 캠프를 각각 개최했다. 행사에 참가한 100여 학생들은 금산사 템플스테이 팀장 일감스님의 지도로 예불, 좌선을 비롯해 명상체험, 선 요가 테라피, 예불 등 전통불교수행을 체험했다. 또, 극전심사위원인 원광 스님의 지도로 가훈 쓰기, 우리 소리 배우기, 만다라 그

리기, 도자기 만들기, 야생차별 답사, 계곡 물놀이, 계곡의 수생생물 알아보기, 불교 상식을 배우는 불교 골든벨과 절마당에 텐트를 치고 자며 밤하늘의 별자리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일감 스님은 “여름불교학교에서 공부하고 수행하면 인생의 큰 보배를 얻게 될 것이다. 개인의 생각과 습관을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잘 돌아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또 “요즘 청소년들이 방학 기간중인데도 불구하고 학원 공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각 대학에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어 불교수련회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사찰 수련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매우

■ 나주 심향사 실지가정 희망 템플스테이 재충전으로 희망을

나주 심향사(주지 원광)는 8월 6~8일 경기 불황에 따른 실직자와 실직가족(아동), 그리고 청년 실업자와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3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실직가정에게 심신 수련과 용기, 희망을 재충전할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를 주최한 원광 스님은 “장마가 끝나고 습도와 기온이 높아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실직으로 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께 휴식의 장을 마련해 드리고 용기를 드리고자 마련한 행사”라고 말했다.

한편, 심향사는 20~22일 지혜나눔심전회(회장 김백경) 주최로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농어촌지역 어린이가 참여하는 “다문화가정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여름이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간간이 굵은 소나기가 쏟아지는 때지만 김제 금산사와 고창 선운사, 해남 미황사 등 호남지역 사찰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수련회를 비롯해 실직자에 희망을 주기 위한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행사가 한창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완주 송광사(주지 도영)는 7월 27~30일과 7월 31~8월 2일 중·고등학교생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효행학교를 진행했다.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도 7월 28일~31일 ‘모악의 품안에서 행복한 명상’이란 주제로 어린이 수련회를 개최하고 108배, 명상, 어린이 경제교육, 한문교실, 물놀이, 전주박물관 견학, 한옥마을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남원 실상사(주지 재연)는 7월 29일~8월 1일과 8월 5~8일 5년간 생명평화 탁발순례를 마치고 실상사로 돌아온 도법 스님과 대화, 화림원 연구원장 해강 스님의 강연, 다도체험 등 ‘지리산의 아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편, 익산 심곡사(주지 화평)는 8월 14~16일 어린이 여름캠프를 개최한다.

■ 해남 미황사·10주년 기념 어린이 한문학당 신입생도 졸업생도 한마당 잔치

땅끝 해남에서도 아이들의 감각을 깨우기 위한 특별한 여름수련회가 열렸다.

해남 미황사(주지 금강)는 8월 6~13일 ‘미황사 한문학당’을 진행했다.

올해 10년째를 맞아 전국에서 모인 50여 어린이가 참여한 행사에는 한문(수심보경), 문화체험, 산사체험, 다도, 숲길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남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달마산과 미황사에서 펼쳐졌다.

한문교육은 금강 스님이 편집한 <수심보경>(사자소화, 범구경, 명심보감)의 내용들을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으로 엮은 책을 교재로 진행해 한문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쉽게 한문에 흥미를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문화체험은 전문 숲해설가의 달마산 숲, 나무에 대한 설명, 별자리 탐방, 탁본체험, 땅끝 바다체험, 달마산 산행 등으로 진행됐다.

산사 체험은 1300년 된 미황사의 역사와 가람배치, 목재건축의 의미에 대한 설명, 예불과 사찰예절, 발우공양, 명상 등으로 이어졌다.

또, 미황사에서는 7월 31일~8월 2일 그동안 한문학당에 참여한 졸업생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문학당 졸업생을 위한 축제 - 친구야 반갑다’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졸업생과 지도교사, 지도스님들이 꾸미는 축제를 ‘미황사 장건설화따라 땅끝마을 걸기야 마실기’ 등의 행사로 꾸며졌다.

■ 고창 선운사·용기와 희망을 주는 템플스테이 타국생활의 어려움 절에서 풀이

전북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8월 1~2일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용기와 희망을 주는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자비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스리랑카, 태국, 중국인 등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 있거나 다문화가정을 꾸린 외국인 가족과 봉사자 등 88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간담회, 중국인 등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 있거나 다문화가정을 꾸린 외국인 가족과 봉사자 등 88명이 참여했다. 단란 사찰예절 습의에 이어 주지스님의 법문, 예불, 참선, 108배체험과 판소리과 다도, 차발 포행 등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달마역경> 수련을 통해 근골강화수련법을 익혔다.

법만 스님은 “타국생활에서 오는 어려움 속에서 용기를 잃지 말고 서로 화합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말자”고 당부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실직자와 실직자를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스리랑카, 태국, 중국인 등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 있거나 다문화가정을 꾸린 외국인 가족과 봉사자 등 88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간담회, 중국인 등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 있거나 다문화가정을 꾸린 외국인 가족과 봉사자 등 88명이 참여했다. 단란 사찰예절 습의에 이어 주지스님의 법문, 예불, 참선, 108배체험과 판소리과 다도, 차발 포행 등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달마역경> 수련을 통해 근골강화수련법을 익혔다.



‘미황사 한문학당’에 참가해 탁본 체험을 하는 학생들.



고창 선운사에서 열린 ‘용기와 희망을 주는 템플스테이’.

■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선덕사 유치원장 행법 스님

“어린 나무 키워야 미래 있어요”

광주 선덕사는 무등산 자락이 시작되는 곳에 위치한다. 이곳은 유치원과 함께 오래전부터 어린이 문화 프로그램을 선도해온 불교 포교 사찰로 유명하다.

선덕사 행법 스님(사진)은 체구가 작은 비구니스님이다. 하지만 스님은 두 가지의 큰 화두를 들고 다닌다. 하나는 유아포교이며 다른 하나는 불교의 사회운동.

“결론은 사림이예요. 어린이회를 이끌 지도자가 절실합니다. 어린 나무가 커서 큰 나무가 되지, 고목만 불되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행법 스님은 “불교의 미래는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달려 있다”며 “결국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스님의 원력은 곧바로 유아포교로 이어졌다. 행법 스님은 광주불교계에서 유아포교를 가장 먼저 시작한 분이다.

스님은 1969년 전남대 간호학과를 다니면서 간호학과 불교학 생회를 조직하고, 대학병원과 여고 교사 재직시에는 학교 불교학생회를 조직했다. 정자 어린이 포교에 대한 원력은 광주 관음사 어린이법회를 맡은 것이 인연이 됐다.

스님은 출가 후 본격적으로 어린이 포교를 위해 나섰다. 체계적인 포교를 위해 대학에 다시 진학해 유아교육학과에서 전문지식을 습득했다.

그런 연유로 1980~1990년대 선덕사에는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회 법회가 활성화됐다. 특히 1994년 선덕사에는 불교 유치원이 설립됐고, 올해로 17

번째 ‘어린이 수행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선덕사 ‘어린이 수행학교’는 광주지역 최초로 친환경을 모태로 하는 프로그램과 어린이 유적답사를 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선전문화원을 만들어 어린이 예술단을 운영하는 등 스님은 불교에 입문한 후 40여 년을 어린이 포교에 힘써왔다.

행법 스님의 직함은 선덕사 유치원장, 광주불교 문화대학원장,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前 평화실천 광주전남불교

연대 공동대표, 6·15민족공동위원회 광주전남지역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행법 스님은 불교의 사회 참여를 강조한다. “사찰에서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회 속에서 그 역할을 해야 불교가 살 수 있어요.”

스님은 2004년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 상임대표를 맡으며, 사회현안에 직접 참여했다. 이라크파병 반대 1인 시위, 광주 패트리엇트미사일 기지 이전 반대운동을 시작으로 환경, 통일,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쳐왔다.

이런 행법 스님이기에 최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스님의 말도 단호하다. “강에는 맑은 물이 흘러야 합니다. 한번 잘못된 정책으로 훼손하면 복원하는데 100~20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지금 사업비 1/10이라도 환경오염물질을 정화하는데 사용해도 4대강은 살릴 수 있습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www.dongsanbud.net

행복의 씨앗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음의 다툼과 삶의 지루함을 느껴왔을 것입니다. 불교는 일상의 고통을 덜어주고 삶을 더욱 행복하고 중요하게 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본 대학은 불교를 더욱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조계사학 동산불교대학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을 모시고, 최초의 2년제 불교대학으로서 많은 불교지도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불교대학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오늘 동산불교대학을 만나십시오!

2009년도 후기

동산불교대학·대학원·의식교육원 신입생모집안내

불교와 관련한 근본사상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신행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교계 각 분야별 권위있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불교인재를 양성코자 아래와 같이 학생을 모집합니다.

불교학과

1. 교과목 및 교수

교과목	교수
법학사상, 반야사상, 화엄사상, 불교사회복지론, 불교학개론, 선사상, 불교미술, 밀교사상, 포교방법론	무진장스님(본대학장), 박종(동산불교대교수), 차차석(동방대학원교수) 김형준(동산불교대교수), 정영섭(승가대교수), 보각스님(승가대교수) 최중석(금강대교수), 이평래(총남대교수), 김호규(동국대교수) 윤철수(문화재단전문위원), 종석스님(승가대교수),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근본불교, 대승불교, 비교종교론, 불교성당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정토사상	최봉수(동국대교수), 주명철(동방대학원교수), 최중석(금강대교수), 박종(동산불교대교수), 정병진(동국대교수), 차차석(동방대학원교수), 김상현(동국대교수), 모주스님(동국대교수), 법성스님(승가대교수)

2. 강의일시 및 모집인원
▶ 토요반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100명), 목요일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50명), 통신반 (50명)

3. 모집일정 및 제출서류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9년 7월 1일부터 접수중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불교관련학과

학과 및 과정	교과목	교수	개강 및 강의일시
불교한문학과 (2년과정/정규반, 통신반 30명)	한문해석(금강경(1),(2), 중국고전(노자), 유마경(1) 등)	심재동교수	9월 3일(매주-목) 오후 7시
불교다도학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중국차문화사(한국, 일본, 유럽) 재다학(1),(2) 한국의 현대차	박희준교수	9월 8일(매주-화) 오후 2시
불교미술학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불화기법, 사물, 단청, 여래초, 보살초, 사왕초 등	법인스님	9월 10일(매주-목) 오전 10시 30분
사찰음식문화학과 (1년과정/정규반 20명)	사찰음식(불, 여불, 가을, 겨울)	정산스님	9월 9일(매주-수) 오후 2시

불교대학원(법사과정)

학과 및 과정	교과목	교수	개강 및 강의일시
불교학과 (3년과정, 정규, 통신 각 30명)	유식 30송 (1)	모주스님	9월 7일(매주-월) 오후 7시
근본불교학과 (3년과정, 정규, 통신 각 20명)	반니원경 (열반경)	김형준교수	9월 8일(매주-화) 오후 7시
	산스크리트해석본 금강경 (8)	최봉수교수	9월 10일(매주-목) 오후 4시

동산불교의식교육원

학과 및 과정	교과목	교수	개강 및 강의일시
한글의식반(1년과정 20명)	각종의식 이론, 실기	만춘스님, 문중순법사	9월 5일(매주-토) 오후 2시
법배의식반(2년과정 20명)	법배 실기	인각스님	9월 11일(매주-금) 오후 3시

본회사사무처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 732-1206 FAX : 732-1207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연락주시면 학생모집 팸플릿을 발송하여 드립니다.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학장 무진장 / 이사장 안동일